



# 퇴직연금 수익률과 퇴직연금 부채

---

2019.11.25.월

연구위원 홍원구

# 목 차

---

1

연구의 배경 및 목적

2

퇴직연금 현황

3

퇴직연금 수익률과 퇴직연금 부채

4

결론 및 시사점

# 1

##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# 연구 배경과 목적

-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는데, 수익률은 매년 낮아짐
-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며,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기업은 그 차이를 보전해야 함
  - ›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은 추가 비용을 부담
  - ›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대적 손실을 봄
- 수익률 저하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 규모 추정
  - › DB형 퇴직연금

# 2

## 퇴직연금 현황

# 퇴직연금의 성과와 한계

-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강화됨
  - › 사외적립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부담
  - › 일시금에 대한 과세 강화, 중도인출 제한 등 가입자의 부담
- 퇴직금 제도의 영향 → 의무화 ?
-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장
  - › 부도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의 가입율이 낮음
  - › 적립율
- 퇴직연금 납입적립금이 증가하고 있는데, 수익률은 매년 낮아짐
  - › DB형 도입 기업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, DC형 가입자는 상대적 손실을 봄
  - › 퇴직자산/ 퇴직소득의 감소
- 연금 인출 비율이 낮음
  - › 중도인출
  - › 주택연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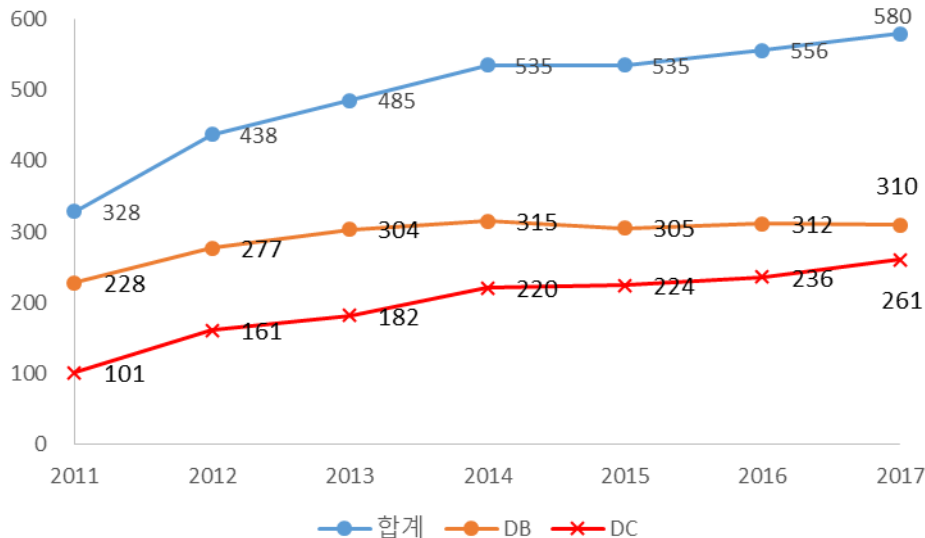
#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금

- 2017년 12월말 퇴직연금 가입자는 580만명(가입 대상 근로자의 50.2%)
  - › DB 310만명(53.4%), DC 254만명(44.9%), 병행 9.4(1.6%)

- 2018년 12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
  - › DB 121.2조원(63.8%), DC 49.7조원(26.1%), 개인형IRP 19.2조원(10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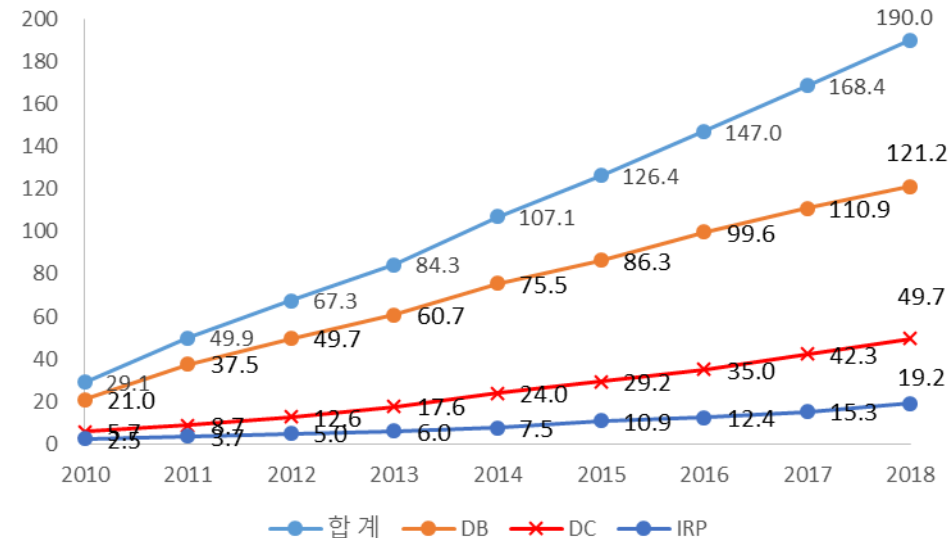
## 가입자

[만명]



## 적립금

[조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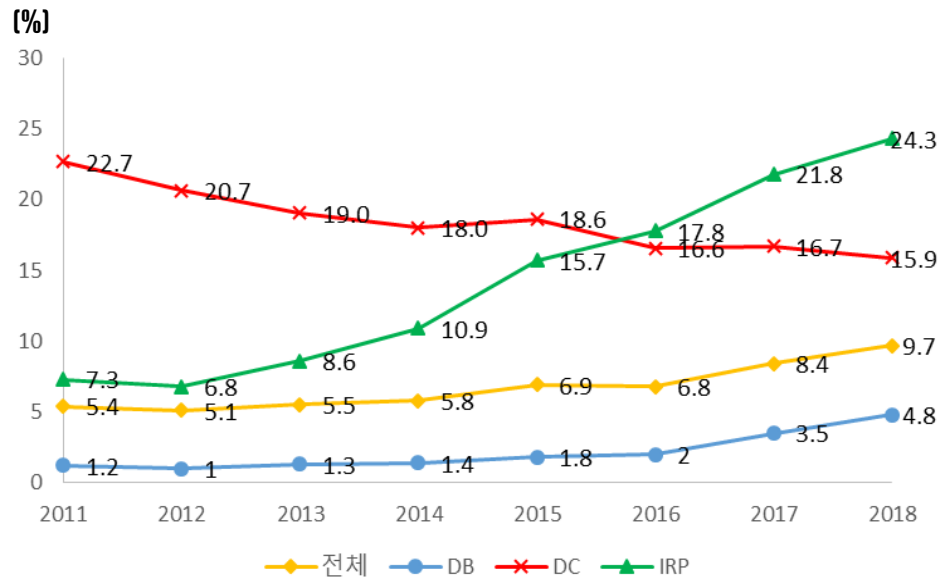
자료: 고용노동부, 금융감독원

#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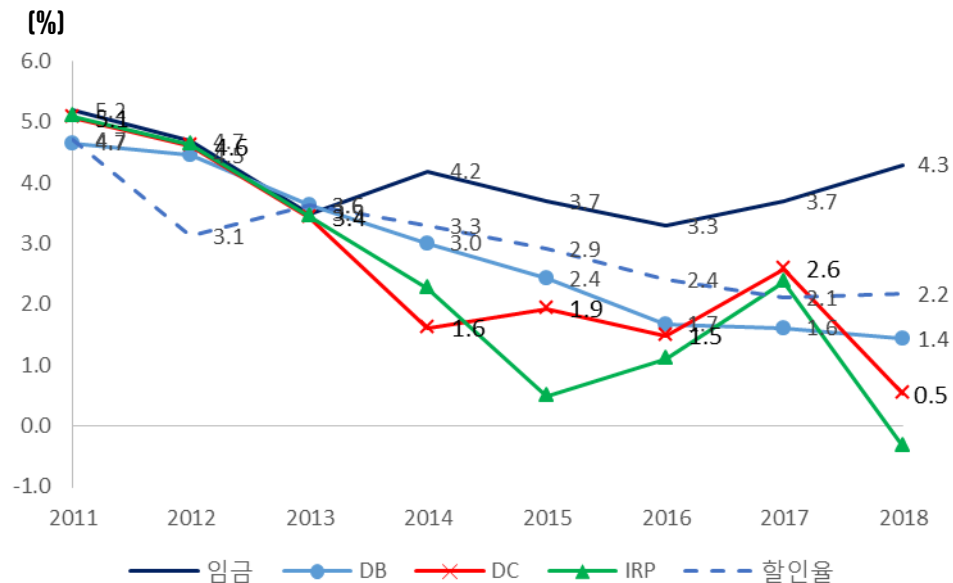
- 2018년말 적립금 190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171.7조원(90.3%), 실적배당형은 18.3조원(9.7%)
  - 실적배당형 DB 4.8%, DC 15.9%, IRP 24.3%, 전체 9.7%

- 2018년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은 1.01%
  - 제도유형별: DB 1.44%, DC 0.53%, IRP -0.34%

##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



## 적립금 수익률



자료: 금융감독원



# 3

퇴직연금 수익률과 퇴직연금 부채

# 퇴직연금 급여

## ○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

- › DB형: (최종 월급여 \* 근로연수) 이상의 금액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
- › DC형: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입

## ○ DB형 퇴직연금 수익률과 임금 상승률의 관계

- › 가입자(근로자) 입장에서 볼 때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존의 퇴직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일치함
- › 기업은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때 그 차이를 보전해야 하므로 추가비용 발생

3년차 월급여: 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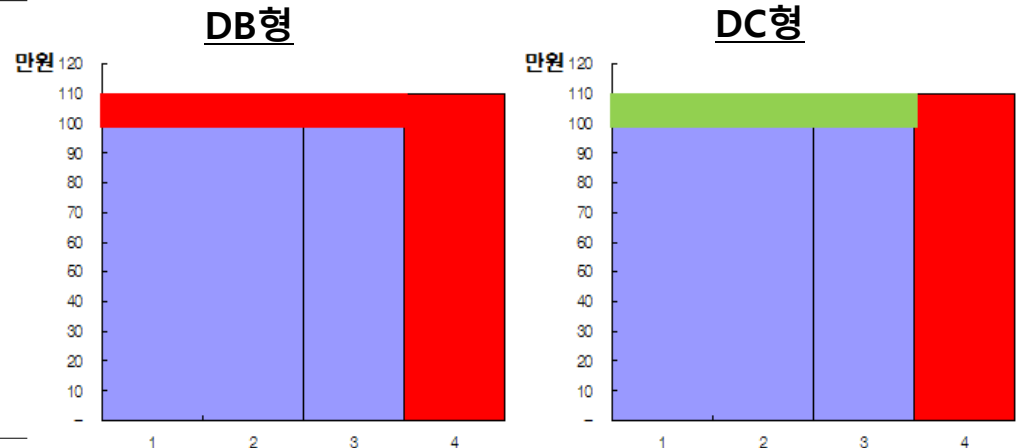
3년차 말 퇴직급여:  $100 \times 3 = 300$

4년차 월급여: 110 (임금 상승률( $w$ ) = 10%)

4년차 말 퇴직급여

DB형:  $110 \times 4 = 440 = 300 \times (1+w) + 110$

DC형:  $300 \times (1+r) + 110 > = < 440$



# 임금상승률과 할인율

- 퇴직급여 부채 =  $\max(\text{최종급여} \times \text{재직연수}, \text{예상 퇴직시점의 급여의 현재가})$ 
  - › 퇴직급여의 과소 계산을 방지하고, 연금부채 비용을 평활화
    - 할인율 < 임금상승률
  - ›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할인율은 10년 만기 국고채의 3년 평균
    - 회계상 할인율은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 가능
  - › 실제 수익률이 할인율과 다를 것이므로 매년 비용과 수익을 조정함

- 예: 임금상승률 5%, 할인율 3%

	1	2	3	4	5
월급여	100	105	110	115	121.6
퇴직금 방식	100	210	330	460	607.8
퇴직급여 현재가	108.0*	111.2	114.6	118.0	121.6
기초		108.0	222.5	343.7	472.0
이자원가(%)		3.2**	6.7	10.3	14.2
당기근무원가	108.0	111.2	114.6	118.0	121.6
기말	108.0	222.5	343.7	472.0	607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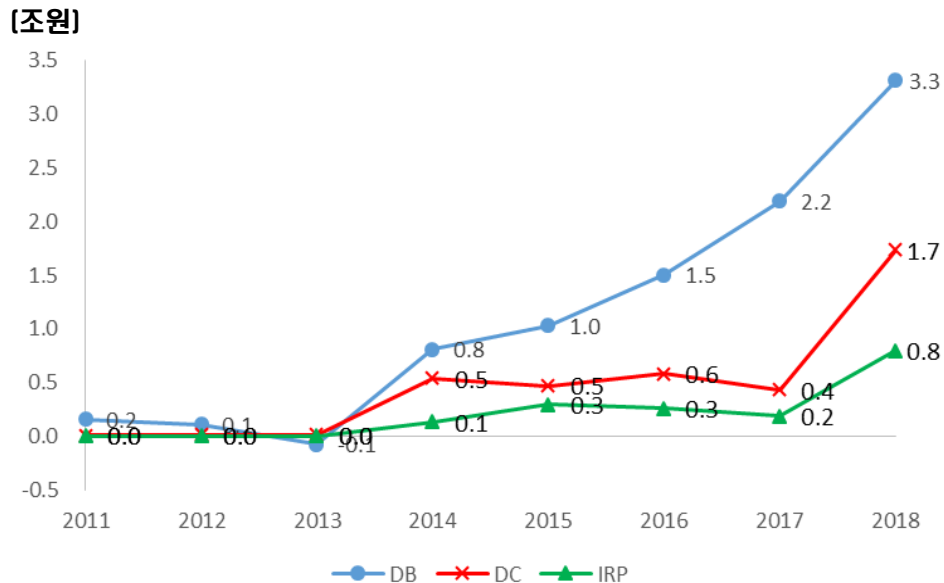
\*  $121.6 / (1.03)^4 = 108$

\*\*  $108 \times 0.03 = 3.2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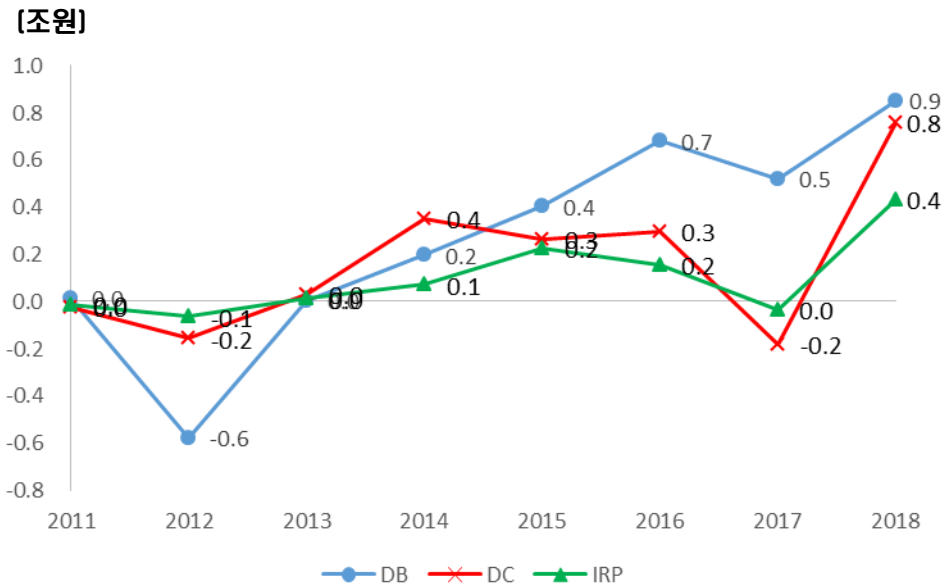
# 퇴직연금 적립 추가 비용 (1)

- 2018년 임금상승률 대비 추가 비용 DB형 3.3조원, DC형 1.7조원, IRP형 0.8조원
  - (임금상승률-수익률)\*(평균 적립금)
  - DB형  $(4.3\%-1.4\%)*(121.2\text{조원}+110.9\text{조원})/2=3.3\text{조원}$
  - DC형  $(4.3\%-0.5\%)*(49.7\text{조원}+42.3\text{조원})/2=1.7\text{조원}$
- 할인율 대비 추가 비용은 2018년 DB형 0.9조원, DC형 0.8조원, IRP형 0.4조원
  - (할인율-수익률)\*(평균 적립금)
  - DB형  $(2.2\%-1.4\%)*(121.2\text{조원}+110.9\text{조원})/2=0.9\text{조원}$

## 임금상승률 대비 추가 비용



## 할인율 대비 추가 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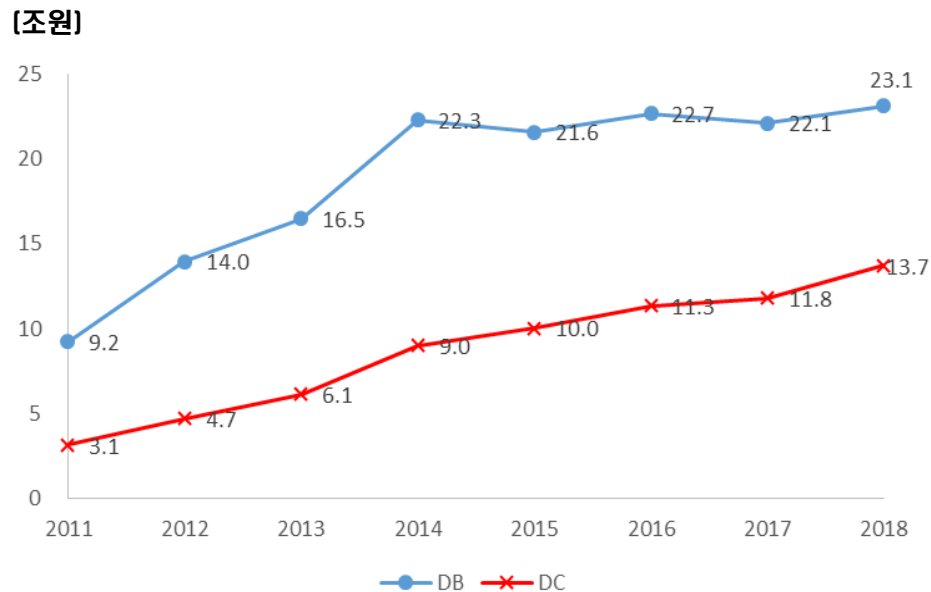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

## 퇴직연금 적립 추가 비용 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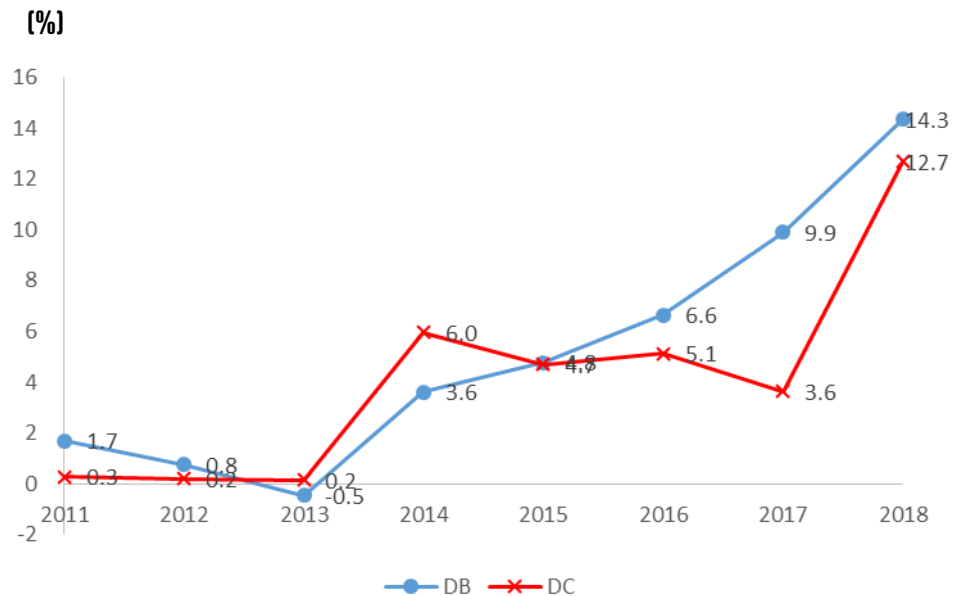
- 2018년 추가비용은 정기납입액의 10%를 넘어섬
  - 제도유형별: DB 14.3%, DC 12.7%
- 정기납입액은 매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납입한 것이며, 수익률이 낮아 발생한 추가 비용은 그 해 말의 부채 증가로 이어짐
  - DC형 가입자의 경우 상대적 손실액을 감수함

## 사용자의 정기납입액



자료: 금융감독원

### 정기납입액 대비 추가 비용 비율



# 4

## 결론 및 시사점

# 추가 비용에 대한 관점과 대응 방향

- 기업은 매년 평균 1개월 급여의 해당하는 그 해의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하며, 수익률이 낮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함
- 이러한 비용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, 퇴직금 제도에서도 발생하였던 비용임
  - ›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에 대한 투자위험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음
- 기업은 자산운용을 통해 이자수익만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, 따라서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요구됨
  - › 과거 퇴직금 제도에서 사내 적립된 자산이 기업 활동에 사용되어 기업의 이익율만큼 자산의 증가가 있을 수 있었으나 퇴직연금 채무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
-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투자손실을 직접 부담함
  - › DC형 가입자 자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
- 적극적이며 전문적인 자산운용
  - › 개별 근로자나 사업자 → 기금형, 일임형
  - › 개별 근로자 + 투자자문 + 최저 보증형 상품 등 - 비용 수반
- 한국형 401(k) 제도
  - › 추가비용을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DC형 퇴직연금



**Thank You!**